

[성탄축하말씀집회]

셋째 날 :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

하용조 목사 / 녹 19:10 / 페이지 수: 3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적당한 자리는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궁궐이나 상류층 안방에 태어나셨다면 그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생아나 고아, 전쟁 중이나 길거리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마구간 정신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죄인이기에 이 말씀에 많은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똑똑한 사람, 상류층, 지성인,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만 구원하러 오셨다면 실패자였고, 좌절했고, 절망했고, 자살 직전에 있던 우리들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좌절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빨리 그분 품으로 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조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들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우리의 저주를 막아주기 위해,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물의 사랑을 하셨고 상처받은 사랑,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침묵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랑은 타인을 지배하는 사랑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종을 만드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주인과 노예 관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저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나에 대해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죄인을 위해

오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러 오셨다고 되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되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삭개오를 만나주러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이 세상에는 잊혀진 사람도 많고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수가성의 귀신들린 여인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버려진 여인, 잊혀지고 소외된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배신해도 어떤 죄를 저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예수님은 지옥까지라도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사람, 자포자기한 사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을 찾고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 주신 본래 인간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꿔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고귀한 사람이요 존귀하고 축복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랑과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주십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빌 하이벨스 목사가 한 얘기 중에 인상적인 예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정크 메일이 많이 옵니다. 그 중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전단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도 정크 메일이 하도 많으니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 하필이면 아이의 얼굴이 보이는 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목사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전단을 만들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않고 버릴 지라도 자신은 그 메일을 계속 그들의 집에 포기하지 않고 집어넣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내 재산을 다 탕진 할 때까지 아들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찾아갈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거가 먼데...” 저 멀리 비천한 거지의 모습으로 아들이 나타났는데도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려고 마음만 먹어도 알아들으시고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바꿔도 ‘내 아들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며 하늘은 진동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가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퇴색합니다. 열정으로는 사랑을 테스트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가 창조한 이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십자가 사랑의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방황하는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축제를 여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 제일 기쁜 일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전도하는 사람만이 압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공을 들여 데려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똑같이 누리는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잔치를 여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축제입니다.

탕자의 심정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새 삶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기적들을 폭포수처럼 쏟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신 세 가지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절망했던 내 영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던 내 모습을 고백하며

주께 돌아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 출처 : 은누리신문